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용

##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오늘, 2009년 제1차 성찬식  
(1~5부예배 시)

### 생명의 말씀

### 믿음의 여정 (미가 7:8~13)

한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였던 미가 선지자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었다. 그의 눈과 귀는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 있었다. 하나님의 임이 되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였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외쳤다(미 6:8).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마다 미가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조롱이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는 모함과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하였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미 7:7)

믿음의 길을 완전하게 걸을 수 없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외쳤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미 7:8)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믿음의 길을 완전히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미 7:9). 오히려 그는 더욱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완전히 걸을 수 없음은 인정하자.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진심으로 회개하자(요일 1:9).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완전히 걸을 수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매순간 쓰러질 것이다(롬 7:22~24). 그때마다 예수님께 매달리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2009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참 소망의 빛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는 바울의 고백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이 영과 진리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마십시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녀답게 세계 및 국가적 위기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태어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오늘 주일1~5부예배 시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제1차 성찬식이 있습니다. 신년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4)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향기(고후 2:15)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2009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아멘.

께서 인도하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한 걸음씩 예수님과 동행하자(고전 6:11).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완전히 걸을 수 없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 미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길은 분명 쉽지 않다. 대적이 있다. 얄트러진다. 어두운 데 처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얄트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8) 세상에서의 행복과 축복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자.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자.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

믿음의 길은 믿을 만한 길이다 미가 선지자는 필박과 한탄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았지만 걸어야 했다. 최후 심판자와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미 7:9).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소망하였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성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미 7:10~12)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그 땅은 그 주님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미 7:13) 지금 처한 현실만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믿음의 길만이 믿을 만한 길이다.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대답이다.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현실을 보지 말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전하자. 아멘.



# CALLED AS SAINTS

*<sup>(5)</sup>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among all the Gentiles for His name's sake, <sup>(6)</sup>among whom you also are the called of Jesus Christ; <sup>(7)</sup>to all who are beloved of God in Rome, called as saints: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Romans 1:5~7)

Paul met Christ Jesus on his way to persecute Christians in Damascus. Jesus changed him in the midst of his journey and called him as a servant for the gospel of God. Paul took his calling seriously. He was given the duties of an apostle with the task of spreading God's revelation specifically to the Gentiles. The church in Rome was predominantly Gentile and since Paul had never visited them before he wrote this beautiful letter to prepare the way for his visit. Today's message comes from the end part of Paul's greeting. Let's look at several key elements that Paul used in his description of Christians.

The term "obedience of faith"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Paul mentions: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among all the Gentiles for His name's sake"(Rom. 1:5). Obedience of faith is always required between God and humans. Please understand that obedience that results from faith is something new that Jesus Christ started. Jesus demonstrated this obedience during his thirty-three and half years living on this earth, "I can do nothing on my own initiative. As I hear, I judge; and My judgment is just, because I do not seek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Jn. 5:30). He further explains, "For I did not speak on My own initiative, but the Father Himself who sent Me has given Me a commandment as to what to say and what to speak"(Jn. 12:49). As Christians, we belong to God's kingdom and we definitely need obedience of faith for living, "For He rescu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Col. 1:13). We cannot do our own things with our own efforts without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God. In order to speak and act like a Christian, you must practice obedience of faith. It is this obedience that separates us from the world and gives us the power to live as Christ.

The term "called" is another significant concept that Paul points out, "among whom you also are the called of Jesus Christ"(Rom. 1:6). Christians are called by God. Jesus calls His sheep and His sheep hear His voice and come to Him. 2Timothy 1:9 says,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ranted us in Christ Jesus from all eternity." The entire Book of Romans focuses on the new life of Christians that frees them from the wrath, sin, and certain death of their own will. The power of God that is manifested through Christ Jesus comes from His love for humanity,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Rom. 8:32). Romans 5:8~9 also say,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God's love is poured on us and covers all our life,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Rom. 5:5). Paul sums up the power of God's love upon Christians,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i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Just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are being put to death all day long; we we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ly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Rom. 8:35~39).

The term "saint" is also used by Paul to describe Christians, "to all who are beloved of God in Rome, called as saints: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Rom. 1:7).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many religious denominations developed certain traditions concerning sainthood. Someone who demonstrated exceptional holiness or wonderful achievements within Christianity would be given the title of saint. The Bible does not use this standard or measure! God looks at all Christians as saints because of their belief in Jesus Christ. He gives every Christian grace and peace as His gift. Jesus sai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Jn. 14:27). He further instructs Christians,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Lk. 10:5). As Christian saints we should share our grace and peace with others. It is God's gift received through our faith in Christ.

My dear friend, Paul wrote to the church in Rome because he wanted to meet the saints who worshipped there and preach to them the gospel. He wanted to help them not defect from any of God's standards. The Roman Christians were God's children and He loved them. Please appreciate your obedience of faith, calling, and sainthood. Do not take these things for granted. They have come to you from heaven above, through God's great love for you. Jesus Christ will carry you onward to something more wonderful than your mind can even imagine,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1Jn. 3:2~3). Amen. 🙏



## 다을 주일 설교

##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sup>(5)</sup>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sup>(6)</sup>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sup>(7)</sup>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7)



김성완 목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임무를 지닌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편지를 먼저 보냄으로 그들이 자신의 방면을 예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하였던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바울이 언급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롬 1:5)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믿음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새로운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삶을 통해 몸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 5:30) 주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13)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바울이 지적인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롬 1:6)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고 그의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나아옵니다. 디모데후서 1:9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가 확실히 죽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롬 8:32) 로마서 5:8~9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

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며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어 버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 요약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가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 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교파들이 성인에 관하여 특정한 전통들을 확립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확연히 구별될 만한 거룩함이나 놀라운 업적들을 인정받은 몇몇 사람들만이 성인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기준이나 척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총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주님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눅 10:5)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까닭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흠 없는 자가 되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은총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아멘.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 2009년,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루앙, 아가, 불완전 가족(와선부)



이 필리드(와선부)



김광미(성도, 사랑부)



심재현(집사, 20교구)



김승희(집사, 가브리엘찬양대)

● 동골을 떠나 이곳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그것은 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갈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어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각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루앙, 아가, 불완전 가족(와선부)

●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서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빛이 너무 많아서 실일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아무리 어둠도 실일조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필리드(와선부)

● 새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김광미(성도, 사랑부)

● 새해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학생이 될 거예요.

석혜정(성도, 사랑부)

●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난 때에 나 혼자 그 터널을 지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셔서 늘 힘을 얻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2009년에도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재현(집사, 20교구)

● 은전히 주께 바치니요 저희의 재주보다 믿음만을 살려주시고 다만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하소서.

박영민(집사, 별빛찬양대)

● 눈 내리는 새벽에도 교회 오는 길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가브리엘 찬양대원을 모두 2009년에도 힘을 합쳐 좋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큰 은혜 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승희(집사, 가브리엘찬양대)

● 배종우 주신 구원의 은혜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윤산민(집사, 22교구)

●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일독을 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중도에 포기해 버렸는데, 올해는 결국 일독을 하게 해 주시고 단기선교까지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나의 의지보다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어떻게 이끌어주시길 기대되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변기삼(집사, 24교구)

●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이 든든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주와 같이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며 십자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나의 주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은성(성도, 16교구)

●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2009년 힘있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동철(안수집사, 13교구)

● 새해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받은 것이니 제 것이 아니요, 제 생명으로 제 것이 아니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저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박장애(집사, 19교구)

● 복스러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예배와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신호철(권사, 8교구)

● 2009년에도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오 한(간사, 고등부)

●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바쁘게 달려온 지난 해를 돌아보면 2009년은 진짜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류정희(집사, 5교구)

● 새해에는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는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김희희(성도, 예비대부)

● 나의 ‘의’로 열심히 선행해 믿음의 길을 가려 했던 저는 진정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주의 은혜로 2009년을 살기 원합니다.

김후선(권사, 18교구)

● 사도 바울의 고백(고후 12:9)과도 같이 제 능력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말려주신 직분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상민(집사, 예본찬양대)

● 새해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기태(간사, 청년부)

● 성령이 충만한 새해를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양계관(집사, 2부예배위원)

● 2008년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면서 2009년에도는 더욱 낮아져 우리 성도들을 결순히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윤서국(집사, 3부예배위원)

● 금년 한 해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유초중도사실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열의 안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은혜충만, 성령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종훈(안수집사, 영유초중도사실)

● 값없이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핸드벨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경(집사, 벨트연주대)

● 2008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승복(집사, 권리과)

●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새 노래로 더욱더 공경한 찬양으로 드리는 만도린 연주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귀숙(집사, 만도린 연주대)

● 찬양을 선행하기 위해서 위임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경을 깊이 삼고하며 은혜 받는 한 해였습니다. 2009년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숙영(집사, 예부사별찬양대)

● 2008년에는 주님을 알게 되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믿음생활을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변종석(성도, 새가족양육부)

● 주님! 새해에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주님이 많이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다량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정옥희(간사, 외선부)



##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2008년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몇 달이 안 가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그 일이 잠잠해질만하자 다시 작잖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을부터는 천정 일로 재판에 관여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둘째아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여 눈물을 머금고 응급실에도 가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회화하면 올해 저의 삶은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미약하리라'였습니다.

저는 과정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프로젝트를 하나 맡으면 끝이 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야근과 밤샘도 불사했습니다. 그 과정은 남보다 고통이었고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지난해에 일어난 일들은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보다 고통의 연속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저의 태도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물론 일이 터질 때마다 며칠은 고민하고 힘들어 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서 예전 같으면 일을 벌인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일로 얼마나 힘들게 걱정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가족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며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나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하고, 벌어진 시기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또한 나를 부인했을 때 누리는 주님의 평안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를 찾아내고 남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더 큼니다.

남궁양희(집사, 17교구)

## 참 기쁨과 자유를 회복한 성탄 가족연합예배

노라 오는 말씀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한 것이 계속 켜졌습니다. '이래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지구 조바심만 났다.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주기도> 찬송을 불렀다. 그러자 이제껏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올랐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겨왔는가, 주님은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데, 겉으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거룩한 척하며 잔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나야말로 얼마나 쉽게 내 욕심을 위해 주님을 모른척 해왔던가'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런 나를 언제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남편과 아이들 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시종 예배순서를 뒤엎으며 찬송을 조그맣게 따라 불렀다. 말씀은 듣지 안 듣는지 계속 다음에 부를 찬송만 찾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이를 예배에 집중하라고 다그쳤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남편도 아이도 참 귀하게 보였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주님을 보며 나도 거룩한 척 하지 않고 편안한 주님을 볼 수 있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도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 찬송을 부르며 나는 양처럼 기쁘고 자유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고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드리나 감시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게요. 내 평생에 어떤 환난이 와도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김수진(집사, 청년2부)

##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7개월 동안 연로하신 부모님을 핑계로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관계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나태해진 신앙생활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랑이며, 그 몸 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동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예배에 온 가족이 다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최성남(집사, 24교구)

## 루디아관이 좋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모처럼 교역자들이 시간을 내어서 체육 활동을 위해 충현기도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때마침 눈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는 때 같았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거의 모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루디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구비된 시설로 인해서 모든 교역자들은 맘껏 활동하였다.

바깥 날씨는 추웠지만 다목적체육시설인 루디아관은 열기로 뜨거웠다. 완벽하게 구비된 체육시설을 사용한 교역자들은 한결같은 "무슨 말이 필요하냐? 정말 좋다."라는 말을 연발하였다. 운동화만 신으면 그 어떤 체육활동도 가능한 루디아관은 은총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화합하는 최적의 공간임을 확인한다.

(사용문의/충현기도원 031-766-5425)



배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족구



## 주님은 전도의 문도 열어 주셨다

**훈민 시작부터** 사역을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주님은 우리를 높은 산동네로 이끄셨고, 복음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산에 올랐다. 그곳에는 험하고 비참한 생활로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호감어린 눈으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한 후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주님은 전도의 문도 열어 주셨다.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도 보여 주셨다. 농촌마을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을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우리에게서 말씀을 들던 그 여인이 지금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으니 속히 우리의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청년을 보니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다. 의식이 전혀 없고 숨도 쉬지 않는 듯했다. 이들의 머리를 자신의 머위 위에 올린 채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어머니를 제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급처치를 시도하였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10여 분이 지나자 청년의 손이 움직이며 의식이 돌아왔다. 팀원 모두 손뼉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우리는 병원응급실에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그곳을 떠나면서 환자와 부모 형제와 주위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며 힘주어 복음을 전했다. 평가회 시간엔 차 안에서 청년의 회생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 몸이 뜨거워지며 전율을 느꼈다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서로 간증하였다. 우리는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님의 백성 삼으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렐루야!

이기옥(안수집사, 8교구 1지역팀)

##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교 가기 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나는 첫날부터 그곳이 낯설어서인지 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혼을 눈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간절함과 애절한 마음이 부족했다. 그날 저녁, 경건회 시간에 나는 회개기도를 드렸다. 참저히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 “나는 사라지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원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

감사하게도 둘째 날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였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은 정말 맑고 순수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그때 나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과수인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다. “주여!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주님께서는 셋째 날, 넷째 날에도 우리 팀원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셨다.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져 있음을 느꼈다. 감사하고 감사했다. 이번 선교는 은혜 중에 은혜였고, 복음이 들어간 선교지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송은화(집사, 1교구 1지역팀)

## 마가복음 강해 62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말씀 (10:1~12)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막 10:1)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들었다.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러나 이혼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인들도 섞여 있었다(막 3:6).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쟁론을 벌였고, 모함하여 죽이고 하였다.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질문하였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막 10:2) 표면적으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전부였다. 율법에 철저히 따랐다. 특히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규범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잘못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망하려는 종교인들을 안의 악도(막 12:13)를 아셨기에 다시 그들을 향해 질문하셨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막 10:3) 이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은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중사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막 10:4)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이혼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막 10:5) 예수님은 표면적인 이혼의 문제보다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죄성이 문제임을 밝히셨다.

이혼의 문제(신 24:1)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 죽이려는 종교인들은 또 다시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따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6~9)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결혼케도 주셨다(창 1:27, 2:2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은 인간들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은 흔들리며 금이 간다. 결국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은 제정된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신실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 거둔다야 한다. 하나님께 없는 자신의 가치와 신앙관을 가진 결혼생활은 온전할 수 없다. 결혼은 인간끼리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에 인간 편에서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쉼 없이 또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조금 전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막 10:10). 이때 예수님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다(막 10:11~12; 눅 16:18). 모든 유대인들이 절대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역 초기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마 5:27~28). 말씀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 간에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사랑이요 진실한 회개에 필요하다. 율법은 계속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확대되었고 재해석되었다. 한 마디로 율법은 현실에 따라서 변했다(신 21:15~16, 22:22~24).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혼을 넘어 결혼까지 다루셨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축복의 관계이다. 단순히 바르게 사는 문제가 아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거둔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매순간 회개하고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혼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가정문제해결의 핵심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자. 아멘.



새가족양육부

2008년 12월 수료자

##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 십자가에서 조전 얻은 사람을 베를 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갑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삶과 교제와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계속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 저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저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저의 눈동자이고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징표입니다. (이금화)

♥ 주님의 뜻이 계시기에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믿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김주자)

♥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알려주는 거룩한 의미와 감사를 일깨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승문)

♥ 나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교회생활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끊게 된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관구)

♥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자가 되기 위한 상징이고 사랑의 증표이며 예수님과 저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가족보다 더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간도와 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호)

♥ 중언교회에서 좋은 교우들과 교제



하며 그동안 방망이 지냈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연숙)

♥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로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특히 새가족부에서 따뜻하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성덕)

♥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최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김종숙)

♥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의 죄 값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나를 버리고 반성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심민숙)

♥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람 없었던 나를 위해 천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돌고 돌아도 두렵지 않은 든든한 인생을 보장받아 감사합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세상과 유지는 모든 유혹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 동생들의 권유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고 믿음의 다리가 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애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 나의 구주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 죄 사함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격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었고 어려움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유희주)

♥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기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덕희)

♥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 상이신 십자가입니다. 믿음생활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요일이 유일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유경애)

♥ 예수님은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따뜻한 등을 감은 존재이십니다. 믿는 자도 기쁘고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자신이 최인임을 깨닫고 더 내버리는 것을 막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힘이 됩니다. (유경애)

♥ 모든 최인들을 대신해 걸어지신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큰 도움이 아니라도 도움을 주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경미)

♥ 나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든든한 원자라 그리고 달고 심은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참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방영하)

♥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던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영숙)

♥ 직장 동료의 권유로 중언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치켜주시며 향한 힘이 되어 주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권은진)



##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순종하라!

"물을 좀 달라"(요 4:7) "내가 목 마르다"(요 19:28) 주님의 목 마름을 풀어 드려야 할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갈증을 풀고자 하는데 모른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말고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 주님께 영혼구원에 대한 갈증을 풀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한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은 일관성된 예수님을 집중하여 헌신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나는 청년 때 주님을 만나 믿고 열결한 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많은 봉사를 했다. 그러나 위임국사원이 오신 후, 강단에서 섰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였으니, 나의 열심과 기쁨으로 드렸던 그 봉사가 주님께 대한 헌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단번에 생명을 드리신 바, 우리를 구원하여 이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저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지광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는다.

18년 전,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어느 날 나에게 기이한 일이 생겼다. 심장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상한 기적 소리가 났다. 원인을 알 수 없었고,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는 나는 미칠 지경이었다. 주위에 있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랐다. 심지어 의사선생님도 학술연구를 해야겠다고 했다. 나는 방황했고 절망했다. 잠시 쉬었던 새벽 제단을 다시 쌓으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새벽기도를 시작하니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소리가 몸 밖에서 났다. 이후 소리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힘없이 나다가 차츰 하루에 서너 번씩 나다가 사라졌다. 새벽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기도하셨던 주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인에게도 새벽기도를 통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지 주님은 내가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며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채찍질하신다.

2009년 도 나에게 맡겨진 집사직과 및 모든 부서에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 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영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피 묻은 우리의 전부를 천국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 입을 때까지, 가장 위대한 일을 주신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나 또한, 오직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쳐, 거듭난 나의 삶을 간직하며, 한 영혼을 구제하여 여기며 사랑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다.



문효식  
(안수집사, 집사회장)

## ♡ 새 가족 순환 영 합 니 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1  | 한민서 | 20 | 청년1부 | 이혜재(20) | 14 | 김경자 | 3  | 청년1부 | 정기순(1)  | 27 | 한영권 | 3  | 청년1부 | 김학선(18) |
| 2  | 유은주 | 2  | 청년1부 | 김민(1)   | 15 | 김민아 | 20 | 청년1부 | 문보은(6)  | 28 | 송미진 | 2  | 청년1부 | 이은희(1)  |
| 3  | 정희숙 | 2  | 고등부  | 최은혜(1)  | 16 | 김다은 | 17 | 청년1부 | 김은혜(22) | 29 | 박지은 | 16 | 대학부  | 이동현(13) |
| 4  | 최영진 | 7  | 중등1부 | 김영자(10) | 17 | 김강산 | 20 | 청년1부 | 김보현(20) | 30 | 박지은 | 8  | 청년2부 |         |
| 5  | 정현은 | 15 | 고등부  | 김영민(15) | 18 | 이미리 | 18 | 대학부  | 김진희(11) | 31 | 김진현 | 18 | 대학부  | 송영주(15) |
| 6  | 김태훈 | 6  | 소방부  | 문미은(6)  | 19 | 최미정 | 16 | 청년1부 | 박지은(1)  | 32 | 박하나 | 1  | 대학부  | 성지현(1)  |
| 7  | 이영진 | 21 | 대학부  | 이승기(12) | 20 | 정재희 | 6  | 유년부  | 김진희(1)  | 33 | 이은혜 | 17 | 대학부  | 이영현(2)  |
| 8  | 오경남 | 13 | 소년부  | 이영현(24) | 21 | 송승현 | 6  | 청년1부 | 김영희(8)  | 34 | 이정민 | 9  | 대학부  | 주승선(11) |
| 9  | 신현동 | 25 | 중등1부 | 김영민(1)  | 22 | 김나리 | 12 | 청년1부 | 송은혜(1)  | 35 | 김진민 | 17 | 대학부  | 김민(20)  |
| 10 | 정희숙 | 25 | 고등부  | 박지은(1)  | 23 | 최영주 | 23 | 청년1부 | 최미정(13) | 36 | 김지희 | 7  | 대학부  | 문영희(7)  |
| 11 | 별   | 25 | 고등부  | 별지(25)  | 24 | 김태하 | 9  | 대학부  | 김진현(21) | 37 | 양은진 | 2  | 대학부  | 박지은(1)  |
| 12 | 박시현 | 25 | 고등부  | 별지(25)  | 25 | 고희수 | 16 | 대학부  | 김진현(9)  | 38 | 최은주 | 5  | 대학부  | 박정훈(14) |
| 13 | 김진주 | 13 | 청년2부 | 정기순(1)  | 26 | 한지혜 | 21 | 청년1부 | 박학선(21) |    |     |    |      |         |

\*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